

# 수도권 아파트공급 확대...정부가 지방소멸 부추기나

###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 정책, 수도권 과밀·국가균형발전 위해 광주시민단체협, "정부 수도권 집중정책 양극화 심각해질 것"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며 지방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지방 인구·자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수요도 잠재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 정책에서도 그랬듯 분양상한제, 분양가 공개 등의 제도적 보완 없는 무분별한 민간아파트 공급은 투기세력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때 문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6일 정부의 7·10 부동산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서울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가며 수도권 집중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양극

화 해소 방향에 위배된다"며 "규제 해제와 각종 혜택을 통한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은 고사하고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미래 자산을 쫓는 것으로, 결국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과거 정부의 오류를 반복하면서 수도권 과밀 초래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흥남시 경제부총리는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언급하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역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이유로 그린벨트 개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 주장이다. 이들은 "서울 그린벨트 지역 주택건설은 주택을 잡는 효과 보다는 수도권 인구 유입을 부추길 것이고, 이런 식의 규제 해제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며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위한 신도시건설, 이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악순환의 반복이 있을 뿐이다"고 덧붙

였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 소외, 지역불균형, 양극화의 해소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협의회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30년 후에는 시군구의 37%, 읍면의 40%가 사라질 것"이라며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살고 있고, 수도권 인구 유입은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 1000대 기업 본사 74%, 주요 대학 대부분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

터 2019년까지 호남에서만 6만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과거 4년(2012-2015년) 1만명에 비해 6배나 증가하는 등 지방의 인구가 꾸준히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의 그린벨트 해제 후 아파트 공급이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더 상승시켰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지난 2019년 말까지 정부는 서민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27.8㎢를 이미 초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과 주택안정화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코로나19' 90대 첫 사망자 발생

### 코로나 치료 중 숨져...60대 부부 지역감염 확진 판정

광주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 2명이 추가되고, 첫 사망자가 나왔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0대 부부가 광주에서 172·173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150번 접촉자로 172번 확진자인 남편이 시장 주변 한 건물 지하에 있는 초록다방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추정했다. 금양 오피스텔, 교회, 요양원 등 집단 감염 경로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황에서 다시 지역 감염 사례가 나온 것이다. 방역 당국은 다방 주인으로부터 27명 이용자 명단을 받아 검사했지만, 확진 부부

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광주시에서 재난문자 등을 통해 초록다방 방문자의 검사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고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2시께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90대 여성 확진자(광주 112번)가 숨졌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첫 사망자이며, 전국에선 292번째 사망자다. 숨진 112번 확진자는 한울요양원 입소자로 요양보호사인 72, 7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때까지 무증상이었지만 시간

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해 고용량 산소 공급 치료를 받아왔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 첫 사망자 발생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노인 등 고위험 층 환자 치료를 더 세심히 살피기로 했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가족 등의 아래 선 화장, 후장례를 진행하기로 하고 절차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현재 입원 중인 확진자 110명 중 90세 이상 3명을 포함해 70대 이상이 24명(21.8%)에 달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70대 3명은 중증 환자로 기관 삽관(1명), 고유량 산소 호흡(2명) 치료를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16일 오전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차량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

### 마스크, 기침하거나 지병 있으면 KF80 이상 식약처 가이드라인 제시...성능검증제품 '의약외품·KF' 표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6일 식약처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는 미세입자 차단 성능검사 등을 통해 식약처 허가를 받는 의약외품과 허가를 받지 않는 공산품(생활용품)으로 구분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의약외품인 보건용·수술용·비말(침방울)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세입자나 비말 차단 성능이 검증됐는지 제품에 '의약외품'이나 'KF'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미세입자 차단 성능은 KF94가 가장 좋고 이어 KF80,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순으로 좋다. 반대로 호흡이 용이한 제품은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KF80, KF94 보건용 마스크 순이다. /연합뉴스

식약처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볼 때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는 ▲기침·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만성폐질환·당뇨·항암치료 약환자 등 기저질환(지병)이 있는 경우 ▲노인·어린이·임산부·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 계층에 우선 권장된다.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는 더운 여름철이나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또는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추천된다. 다만 밀폐·밀집된 환경이라면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양친형 식약처 차장은 "24개월 미만의 유아 등 스스로 마스크를 벗기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 어린이집 휴원 2주 연장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18일까지 예정된 어린이집(1072곳) 휴원을 2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자 15일까지였던 2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했다. 2단계 해제 시 정상 등원할 예정이다. 휴원 기간에 보육교사는 정상 근무해 긴급 보육을 한다. 시는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 돌봄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임영희 광주시 출산보육과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휴원을 연장한다"며 "어린이집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차 유행이 시작한 지난날 27일 이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11일 지났는데도...휴대폰 매장 에어컨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커지는 공기전파 위험성...환기·마스크 착용·손 씻기 중요

광주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시설 내 에어컨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잇달아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 시즌을 맞아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기 전파 우려 등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에어컨을 가동할 땐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광주시는 16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휴대전화 매장의 환경 검체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매장에서는 주인 부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5일 매장 안에서 환경 검체를 수집했는데 에어컨에서 채취한 표본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주인 부부가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최소 11일 이상 바이러스가 소멸하지 않은 셈이다. 방역 당국은 공기 순환을 통해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바이러스가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체가 채취된 곳의 에어컨의 공기 흡입 부위였다. 방역 당국은 냉방 중에는 하루 2회 이상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와 순환시 환기를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이러스는 코로나19가 집단발병한 광주지역 다른 시설의 환경 검체에서도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확진자 다수가 모임을 가졌던 금양오피스텔 10층 사무실 손잡이와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차에 내려진 아카데미센터의 건물 출입문 손잡이에서도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환경 검체 분석은 특정 시설 내 공동 사용 공간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역학조사다. 에어컨과 문손잡이 등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일 가능성이 있는 시설 내 환경에서 검체를 채취해 분석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직통전화 062)416-6226, 010-6833-1600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김재영(61.2.29~2020.7.17)
- 최종주소: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계길 26(근호리)
- 피상속인 방 김재영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할법인 해남지법 2020.년 10.2로 신청하여 2020.년 7월 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만채권 및 수증서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7월 17일
- 상속인: 1. 박승희(64.9.5~2020.7.17) 2. 박승민(64.9.5~2020.7.17) 3. 김경민(61.10.8~2020.7.17) 4. 김일도(67.4.20~2020.7.17) 5. 김유리(69.9.13~2020.7.17) 6. 김민정(69.9.13~2020.7.17)
- 신고기간: 2020. 7. 17. ~ 2020. 9. 25.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박승희의 주소

### 분실공고

분실계약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31-5, 유담부피호텔&레지민스 A타입 26층 2606호  
계약자: 손은덕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0년 7월 17일

### 산행안내

7월18일(토)  
▲광주광역시의회 7월18일(토) 지리산 반야봉 산도봉 뱀사골, 봉선동롯데마트앞 06: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6:20, 영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앞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급담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광주호신회 7월18일(토) 지리산 의신옛길(서산대사길) 대성골드레이크, 풍암동 롯데마트 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신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7월22일(수) 전북 무주 남덕유 도옥동계곡 산행, 백운로타이어벤트

7월25일(토)  
▲광주충무문화회 7월25일(토) 경남 밀양 구만산 산행, 백운로타이어벤트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화동현대물류앞 07:00 \* 다음카페 광주충무문화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광주호신회 7월25일(토) 합양 영취산 부전계곡,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신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7월26일(일)  
▲광주자연보전단사회 7월26일(일) 산청 울석봉 단뜨기농산 - 백운계곡, 영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주출판사 07:40 \*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7월29일(수)  
▲광주충무문화회 7월29일(수) 경남 밀양 구만산 산행, 백운로타이어벤트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화동현대물류앞 07:00 \* 다음카페 광주충무문화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8월1일(토)  
▲광주충무문화회 8월1일(토) 지리산 서산대사길 대성골드레이크, 봉선동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충무문화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8년

#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예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 북구: 동광 266-1920,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지 266-7601, 용봉 433-1503, 우산 433-1503
- 동구: 남광 675-5530,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앙 222-9054, 중앙 222-8171
- 남구: 남부 675-5530, 백운 651-1833, 봉선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 서구: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문흥 376-7153, 치평 376-6511, 풍암 603-0311, 화정 369-1625
- 광산구: 은남 952-1687, 월곡 959-1920, 청단 973-2900, 하남 955-0451, 광산 944-0444